

海女の 漁撈 方法

金 榮 敦

濟州島에는 海女(潛嫂, 潛女, 裸潛業者, women divers · diving women · sea women · haenyu)가 3萬余나 있다.¹⁾

이들의 漁撈은 그 場所로 보아 <갯물질>과 <벧물질>로 二大別된다. 바닷가에서 떼지어 헤엄쳐 나가 漁撈作業하는 境遇를 <갯물질>이라 하며 떼타서 멀리 노저어 나가 漁撈作業하는 境遇를 <벧물질>이라 한다. 그 마을의 第1種 共同漁場²⁾의 形態 樣相에 따라서는 <벧물질>만 하는 海村도 있긴 하지만 (例를던 城山面 吾照里) 거의가 <갯물질>을 주로 하면서 떼에 따라 <벧물질>을 兼한다.

헤엄쳐 나가든, 노저어 나가든 漁撈次 나가면서 그들은 海女노래를 合唱한다. (近來에 와서는 <갯물질>, 곧 헤엄쳐 나갈 때는 海女노래를 漸次로 부르는 傾向이 짙어간다)

海女들은 바닷가 脫衣場 (혹은 바위밑)에서 <물수건>을 쓰고 <물옷>(海女服)을 입는다. <눈>(水鏡)을 이마에 얹히고 <망사리>(網袋·망시리, 망아리라고도 함)가 달린 <테왁>(浮靱)과 <종계호미>(鐮·정계호미라고도 함), <소살>(採魚槍)·<까구리>(採貝具) 등을 갖고 漁場으로 向한다.

潛水作業을 마칠 때마다 水面에 떠 있는 <테왁>을 붙잡고 <호오이>하고 소리지르는데 이것은 「過度換氣作用」이다. 体内에 蓄積돼 있는 炭酸가스를 내뱉고 한껏 酸素를 吸入하는 것인데 <숨비질 소리>·<숨비 소리>·<숨비>라 한다.

<테왁>밑에 달린 <망사리> 속에 採取物을 넣은 다음, <테왁>을 가슴에

안고 얼마동안 休息하다가 다시 潛水作業을 되풀이한다. 普通은 5m의 깊이에서 45~60秒 가량 作業하지만 必要時에는 最大 20m까지도 潛入할 수 있고 120秒까지도 견딜 수 있다는 點, 月經中이거나 分娩 直前까지도 操業한다는 點, 過度換氣作用으로 들어마신 酸素를 뱃속에 오랫동안 保全할 수 있다는 點 등이 濟州島 海女の 秘訣이요 特長인 것이다. 이 地球上에서 裝備없는 裸潛으로 그토록 水深 깊이 潛水할 수 있고 오래 견딜 수 있으며, 雪寒의 嚴冬에도 耐寒 裸潛할 수 있는 人類가 없다 하니 分明 濟州島 海女는 世界的 存在인 것이다.

되풀이 潛水하기를 15回~40回쯤 마친 海女들은 <갯물질>일 때는 바닷가로 <배물질>일 때는 배로 모여 불을 쬐며³⁾ 休息한다. 談笑하며 폭 쉬고 난 다음 漁撈次 다시 나가는데 1日 出漁回數는 겨울철이면 1~2回, 여름철이면 2~4回요, 1回 出漁時間은 30分~90分이다.

이들의 辛苦와 霸氣는 놀라운 것, <瑰帛箱子 등에다 지고 가슴앞에 「투렁박」 차고>⁴⁾ <저 바다를 한길 삼고 저 물결고개 문지방 삼아>⁵⁾ 嚴肅한 生活 第一線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이러니까 先人들도 이들 海女の 苦勞에 대하여 驚嘆과 同情을 쏟았던 듯, 우선 李健의 「濟州風土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其中에 所賤한 것은 미역이다. 미역을 캐는 女人은 潛女라 일컫고」

2月 以後 5月이 이르기 前에 바다에 들어가 미역을 캔다. 採獲時 所謂 潛女는 알뜰으로 바닷가에 遍滿하고 낫(鎌)을 가져 바다에 들고 海底에 倒入하여 미역을 캐어 나오는데 男女가 어울려도 그다지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보면 可히 놀랍다. 생복 採取도 또한 이와 같은데, 採取하여 官家所役의 役に 應하고 그 나머지로써 典賣하여 衣食한다. 그 生理의 難苦야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만약 不廉의 官吏 있어 貪汚하는 마음을 멋대로 한다면, 곧 名目을 巧妙히 하여 徵索하는 일 해아릴 수 없으며 1年の 所業으로써도 其役に 應하기가 모자란데, 하물

며 官門에 輸納하는 일의 괴로움, 吏胥의 弄奸의 弊는 罔極하니 또한
무엇으르케 衣食의 艱乏 되길 바라리오…」

申光洙의 <石北集>에 실린 「濟州潛女歌」와 和田一郎의 「遊濟州有記」에
나타난 바 濟州 海女에 대한 記錄¹⁾은 그 漁撈方法과 辛苦를 리얼리스트하
게 表現하고 있다.

「正宗時人申光洙石北集에 濟州潛女歌云.

耽羅女兒能善泅하야	十歲已學前溪游를
土俗婚姻重潛女하야	父母節無衣食憂를
我是北人聞不信하니	奉使今來南海遊를
城東二月風日暄하니	家家兒女出水頭를
一鉢一箸一飽子로	赤身小袴何曾羞오
直下不疑深青水하야	紛紛風葉空中投를
北人駭然南人笑하니	挈水相戲橫乘流를
忽學鳧雛沒無處하고	但見菟子輕輕水上浮하니
斯須湧出碧波中하야	急引菟繩以腹留를
一時長嘯吐氣息하니	其聲悲動水宮幽를
人生爲業何須此오	爾獨貪利絕輕死를
豈不聞陞可農蠶山可採하	世間極險無如水를
能者深入近百尺하야	往往又遭飢蚊食을
自從均役罷日供으로	官吏雖云與錢覓이나
八道進奉走京師하야	一日幾馱生乾餓이

金玉遠官 와 綺羅公子席에 豈知辛苦從來리오 纔經一嚼案已推를 潛女
爾雖樂이나 吾自哀로다 奈何戲人性命累吾口腹가 嗟吾書生은 海州青魚
도 亦難喫이니 但得朝夕一 足을」

「法學博士和田一郎氏. 遊濟州有記(朝鮮의)라 今譯其概云. (前略)潮
上風涼이어든 乘漁船하고 出港頭하야 見海女之作業하면 趣味不少也」

라 海女腰佩網袋^{하야} 以藏撈獲之物^{호고} 傍帶瓢瓢^{하야} 以備疲勞時依止
 休息之具^{호고} 手持器具^{하니} 其形이 似鎌이라. 沈而浮浮而沈^{하니} 其沈
 入也에 直伸兩脚^{하야} 如魚在水^{호고} 其浮上也에 乃爲呼吸이라 如是十
 百爲群^{하야} 而浮沈於斜陽海面澄寂之處^{하니} 實爲一種奇觀이라 若有人
 欲買魚^{하면} 則彼等海女爭集船頭^{하야} 誇示己物이라 夕陽이 在山^호 早
 炊烟이 籠樹^{하면} 彼海女等은 各歸其家^{호시} 而或裸體而坐巖上^{호야} 乳
 其孩兒者도 亦有之러라. (後略)」

이 外로도 趙觀彬의 <悔軒集>에 보이는 「歎潛水女」에서는 이들의 苦勞
 에 대하여 한결 두드러지게 表現하고 있다.

「潛水女潛水女赤身潛水無寒暑臘月海氣冷徹骨手摘決明干彼諸昨日摘今
 日摘決明大小不盈一日女兮女兮何自苦身役又兼官令促爺孃徑樵郎亦苦不
 及明朝大患隨水寒病作未暇顧往往驚墮腹中兒苦兮如苦無如何必決明海多
 魚海雖多魚皆讓味味求最急一村漁豈獨黃堂鼎俎侈爲是朱門苞苴美苞苴多
 少生愛憎拙劣分明判於此女本弱力已竭欲訴天門遠未達客莫笑客莫笑在
 昔紅顏今赤髮耽羅謫者舊達官目見不覺發一歎我則仁心未忍嘆莫將決明登
 客盤」

濟州島 女人들은 오로지 이 辛酸한 裸潛漁業만을 專業하는 게 아니다.
 만 女人들처럼 農業을 비롯한 他業에 從事하면서 裸潛漁業을 하는데 不遜
 하다.⁷⁾ 이들은 海女일과 同時에 農婦다. 보리를 장만하다가 바다에 가고
 조밭에 감을 매다가 바다에 간다. 물때와 風向에 따라 出漁時間은 날마다
 다르다. 農事일을 하다가 이웃과 떼지어 바다로 나가는 이들의 하루
 作業 時間은 하루 平均 2~3時間이다.

흔히 曲解되듯이 이들에게는 特殊한 血統이 있는 것도 아니다.⁸⁾ 이들
 의 漁撈 技倆은 어렸을 때부터의 修練에 의한 것이다.

女兒가 7~8歲에 이르면 여름철엔 벗들과 온종일을 사는 수가 많다. 尾

類採取와 놀이를 하면서 水泳을 배운다. 水泳에 익숙해 가면 이들을 위해 자그마한 海女器具들이 마련된다. 海女器具를 들고 얕은 물에서 장난삼아 潛水作業을 한다. 海女作業이 盛한 마을에서는 作業習得過程의 國民學校 高學年 學生들도 <미역칠>쯤에는 계 學實쯤은 계 손으로 마련하기도 한다.

이리하여 이들의 作業 기량이 점차 熟達되어 가면 우선 獨立된 海女로서 下單¹⁰⁾이 된다.

年中 濟州島 海女の 作業 全盛期는 미역을 캐는 <미역칠>이다.¹⁰⁾ <미역칠>은 四月末 乃至 五月初에 시작되어 보통 2週쯤 계속되는데 미역을 캐기 시작하는 날을 <解警>(許採)이라 한다.

<解警>하는 날자는 그 마을의 漁村契長, 里長, 海女會長 및 有志들의 合議에 따라 定해진다. <解警날> 이전엔 미역을 採取할 수 없고 採取했다가는 應分の 處罰이 따른다. <解警날>에서 며칠 동안은 미역 採取의 公平을 위해 入, 出漁量 信號로써 統制하고 出漁 信號 以後 繼續 採取하다가 是 間 미역을 押收當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解警> 이후 며칠 동안 마을에 따라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바다를 덮는다. 海女들은 미역을 캐고 男子들은 미역을 나른다. 海邊에 이르는 길과 평평한 들, 심지어는 집마당에 이르기까지 온통 미역으로 깔리는 마을이 있다. <미역칠>은 바다의 祝祭, 海女들은 <미역칠>에 年間の 용돈을 마련한다.¹¹⁾

濟州島 海女들은 出嫁 與否와 아무런 相關없이 漁撈作業을 계속한다.¹²⁾ 그리고 이들은 보통 55歲쯤을 前後하여 裸潛을 그만두지만 <解警>때만은 70~80 高齡의 古老들도 쭉그려진 살갓을 드러낸 채 潛水하는 光景을 목도하게 된다.¹³⁾

數十年前까지만 했어도 海女 있는 家門의 男丁들은 鄉校 出入을 못했었고 世俗的인 立身揚名에 支障이 있었던 듯 하나, 오늘날에는 勿論 이런 觀念 모퉁이 짝 가지었다. 오히려 海女作業이 盛한 마을에서는 門閥, 學

問에 相關없이 閩秀로서 裸潛漁業의 能力 없으면 出嫁하는데 支障 있었을 程度였는가 하면 어떤 地方에서는 <아들은 낳으면 밭로 박차고 딸은 낳으면 돼지 잡아 잔치한다>는 俗談도 떠돌았었으니까. 海女の 漁撈方法에 對해서는 여러面에서 해야 할 말이 많지만 紙面關係로 여기서는 極히 概括的인데서 그쳐 둔다.

註

- 1) 濟州島 海女數의 正確한 統計는 莫然하다. 3萬餘라는 推計는 筆者의 標本 調査에 依한 것이다. 調査에 臨할 때, 年令 및 漁撈作業日數의 基準等을 어떻게 定하느냐에 따라 그 統計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濟州道나 水協 濟州道支部의 統計는 數年前부터 約 2萬 乃至 2萬數千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濟州道 發行 「水產現況」에 따르면 1968年度에는 23,979名, 1969年度에는 21,122名, 1970年度에는 19,805名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算出 根據는 해마다 年末에 99個 漁村契에서 5個 漁協을 通하여 水協에 提出되는 <水産業 家口, 家口員, 從事者數 調査表> 가운데서 「女」만을 統合, 集計한 것인데 實際 海女數는 언제나 이의 3분의 2쯤 된다는게 筆者의 調査 結果였다.
- 그리고 漁民으로서 漁村契 加入率은 約 3분의 1 (1967年度 全國 漁村契 實態 調査 卷 P. 94)이니 이로써도 濟州島 海女數는 三萬餘가 된다는 結論이 나온다.
- 2) 最干潮時 水深 10미터 이내(海藻刈引網漁具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내)의 水面을 말하는데 (水産業法 施行令 第11條 2項) 이 水面에서 貝類 海藻類 또는 水產廳長이 定하는 定着性 水產動物을 採捕하는 漁業을 第1種 共同漁業이라 한다. (水産業法 第8條 3項)
- 3) 그 燃料는 보리짚, 조짚, 솔가지, 장작 따위다.
- 4) 拙著 「濟州島民謠研究」(上) 謠835 參照.
- 5) 前調書 謠 842 參照.
- 6) 李能和 著 「朝鮮女俗考」 PP. 262, 263.
- 7)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濟州道支部의 1970年度 現況에 따르면 海女の 兼業 率은 96%에 達하고 있다.
- 8) 이 글은 「Scientific American」 1967年 5月號에 게재된 巴 뉴욕州立大學校 教授 Dr. Hermann Rahn과 延世大學校 醫科大學 教授 洪 基博士가 共同執筆한 「The Diving Women of Korea and Japan」에서도 이미 指摘한 바 있다.

- 9) 作業 技術에 따라 濟州島 海女들에게는 普通 上, 中, 下의 階層이 있으며, 上軍(상중수, 상중네), 中軍(중중수, 중중네), 下軍(하중수, 하중네)인데 그 階層은 자연히 그 經驗이나 年令에 比例하는 率이 많다.
- 10) 濟州에서 미역에 依한 漁獲高는 海藻에서도 가장 높아 1969年의 境遇 3千 3百萬원에 이르고 있다.
- 11) 韓國의 最南端 馬羅島의 경우, 1970年의 海女 1人당 米역 採取量은 平均 約 300斤으로 6萬원의 收入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로써 모자란 食糧을 確保하고 家計費를 充當한다. <미역철> 이외의 潛水作業은 處一圓하여 <헛물>이라 하는데 전복이나 소라고둥 등을 주로 採取한다.
- 12) 本土 海女들은 出嫁하자마자 漁撈作業을 一切 中斷한다.
- 13) 馬羅島 等地에서는 할머니나 病弱者 등을 위하여 따로 <할망바탕>을 區劃 配定하고 이들의 生計를 保障해 주고 있다.